

삼성전자, 국제기능올림픽 韓 국가대표 후원

2007년부터 7개 대회 연속 후원

삼성전자가 오는 8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을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16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후원금 7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 입소식 및 국제지도위원 합동 워크숍'에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국가대표팀을 7개 대회 연속 후원하게 됐다.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국가대표가 대상이다.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하는 국내 선수는 47개 직종 52명이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기능올림픽 장동섭 사무국장(왼쪽)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김동만 회장. /삼성전자

전기, 중공업, 바이오로직스 등에서 15개 직종 직원 19명을 국가대표로 배출해냈다.

삼성기능올림픽 장동섭 사무국장은 "대회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자신있게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국제대회 도전을 시작으로 그 이상의 목표와 꿈을 키워 미래 인재로 키나가길 바란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 "14년간 車 6000대 팔았다"

정승주 영업부장 '그레이트 마스터' 임명

기아자동차의 '판대왕' 정승주 영업부장이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14년 연속 판매왕을 기록 중이다.

기아차는 15일 BEAT360(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에서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한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을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하고, 표창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그레이트 마스터'는 누계판매 6000대 이상을 달성한 우수 판매 직원에게 부여하는 명

칭으로, 영업 위상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아차가 마련한 명예포상제도이다.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한 후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한 정승주 영업부장은 2006년 이후 14년 연속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켜왔으며, 연 평균 300여대 이상의 판매대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정 영업부장은 2018년에 전년도 판매대수 대비 84% 증가한 767대를 판매함으로써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기아자동차의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된 정승주 영업부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기아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석화業 미세먼지 저감 앞장서야



기자 수첩

김 유 진 (산업부)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안을 내놓게 되면서 다음 날 예보가 미세먼지 '나쁨'이라 해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감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들도 향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가동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낮춰야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손을 건자 석유화학업계도 이에 동참한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4개 정유사 등에서는 연간 국내 배출량 17%인 33만6000여

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선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황합유량이 적은 석탄을 사용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제조업은 미세먼지 방지시설에 약품투입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공단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없어 단속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세먼지 저감은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만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뇌, 심장질환까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은 미세먼지의 주 성분으로 꼽힌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수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 만큼 유해한 물질을 뿜어내는 석유화학업계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누구보다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조를 넘어서 업계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ujin632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8일 (음 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60년생 가족도 항상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72년생 나의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된다. 84년생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면 만회하기 힘들다.	말	54년생 한순간에 잃은 신용은 평생을 가니 방지하지 마라. 66년생 인연은 처음도 끝도 다 중요하다. 78년생 돈을 갚을 수 있는 자가 돈을 꿀 수도 있다. 90년생 탁상공론보다 실행하면 기적 같은 이익을 누릴 공산.
소	49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걸 명심. 6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에 참석하니 마음이 불편할 것. 73년생 남의 충고를 가버어 여기지 마라. 85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호랑이	55년생 모든 일이 예상대로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67년생 좋은 친구를 만나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실물수가 보이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의. 91년생 조상에 제사를 올리는 예법과 절차를 익혀보라.
호랑이	50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계약이나 문서로 이익이 있다. 62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74년생 계획도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크게 실패하기 쉽다. 86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렸다.	원숭이	56년생 지난 일을 잊고 새롭게 출발. 68년생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부르니 아는 길도 물어서 가는 심정으로 행동. 80년생 나가는 시기가 따르오니 망설이지 마라. 92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상대는 다친다.
토끼	51년생 욕심을 버리면 일이 쉽게 풀린다. 63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족의 편안을 먼저 챙겨야 한다. 75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낭패를 보게 된다. 87년생 옳은 일이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행하라.	닭	57년생 운세가 상승하니 주변에 도와주는 이가 있다. 69년생 어려운 시기일 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살자. 81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가 오는 격이니 잠시 지체해도. 93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온다.
호랑이	52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남의 원성을 받을 수 있다. 64년생 가까운 사람 일수록 잘 챙겨야 한다. 76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다. 88년생 수고로움은 크고 돌아오는 실속은 없으나 실망마라.	돼지	58년생 익숙한 일도 가버어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70년생 피로가 쌓여 일의 진행이 느리니 총전이 필요. 8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펌난감. 94년생 주관적인 판단이 남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뱀	53년생 쇠퇴하는 시기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65년생 매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하라. 77년생 일의 진행 상태를 철저히 살피고 대처. 89년생 사방에 공연한 말이 많으니 항상 주위를 살피라.	돼지	59년생 남의 송사에 끼여들면 공 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71년생 약속을 잘 지켜야 이미지가 좋아진다. 83년생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 95년생 소소한 일로 일회일비하는 것은 감정 낭비.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2	6				7	4	9
			6	9	4			
	3	1				6	2	
6								7
	4		7				5	
2		4	8		1	3		5
5		9				8		1
	1							6

6		8		7		5		1
	9		5		1		6	
	5	9				3	4	
	6			5				9
		4				8		
				8	3	9		
9	3			6			7	8
		1	2		7	6		

스도쿠 정답

2	9	6	5	4	1	8		
1	4	8	1	9	6	9	5	
5	6	1	9	8	7	4	2	
8	5	1	9	4	1	2	6	
4	1	6	2	7	1	5	8	9
7	2	9	5	8	6	1	4	2
1	8	2	7	6	9	4	5	1
6	7	4	8	1	5	9	2	4
9	1	5	4	2	8	6	7	3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한바탕 꿈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할지라도 깨어나면 다시 허망해질지라도 한번 원하는 부귀영화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다. 일장춘몽이라 말해지는 꿈속의 영화도 그러하거나 실제 인생 부귀영화의 허망함은 지나고 나면 역시 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여러 고사에서 보이고 있다. 신라시대 승려였던 '조신'의 꿈이 있다. '황량몽'(黃梁夢)이라 하여 당나라 현종 때 노생(盧生)의 꿈 얘기가 있다.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 역시 인생이 한바탕 꿈과 같다는 메시지와 다름이 아니다. 꿈은 참으로 신비하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꿈에 대한 과학적 해명은 단지 뇌파의 움직임의 메카니즘 정도를 파악하여 정리해 놓았을 뿐이지 무엇이 진정 꿈의 속성이며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언하지 못하고 있다. 꿈은 예지몽(叡智夢)적인 특성이 있다. 실제로 조신은 한바탕 꿈을 꾸고 난 후에 대오각성의 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도가에 진전을 보였다. 당나라 한단(邯鄲)지역을 향해가던 노(盧)씨 성을 가진 서생이 주막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자 그 얘기를 들던 여옹(呂翁)이란 노인이 베개를 빌려주어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꾸었다. 그 부귀영화의 사이사이에 겪었던 귀양살이나 반란에 연루되어 겪는 끔찍한 고초에 놀라 깨었다. 여기서 노생에게 베개를 내주었던 여옹은 신선이었다는 것이다. 신선 여동반은 "사람의 일생이란 한바탕 꿈이 아닌가?" 하며 웃자 그는 인생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깨닫고는 여옹을 따라 도를 배우기로 하여 그를 따라 떠났다. 그가 결국 신선도를 이뤘는지 그 훗날 얘기는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노생이거나 어쩌면 노생만큼 못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 한번 꺾이고 싶어하며 인생사 고락이라 할지라도 영화 한 번 누리봤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칼날 끝에 묻은 꿀이라 할지라도 그 꿀 한번 훑아보고 싶어하는 이가 적지 않을 테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5호